

가수 송대관 별세

서민 애환 달래준 트로트 큰 별 지다



'해뜰날' 등으로 큰 인기를 누린 트로트 가수 송대관이 지난 7일 오전 별세했다.



절친했던 태진아. /연합뉴스

"짱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짱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지난 7일 심장마비로 별세한 송대관의 장례식장에는 고인과 친분이 있던 가수들이 찾아와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후배 가수들이 도열해 가수 송대관의 대표곡 '해뜰날'을 조가로 합창하자 영결식장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들은 희망찬 노랫말에도 불구하고, 슬픔에 잠겨 먹먹한 표정을 지었다.

50년 넘는 세월 노래로 대중과 호흡한 고(故) 송대관의 영결식이 9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치러진 영결식에는 유족과 동료 등 70여명이 참석했으며, 고인의 배우자는 식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복반된 감정에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영결식은 고인을 향한 묵념과 배우 겸 가수 김성환의 약력 소개로 시작했다. 생전 고인의 라이벌이자 막역한 후배였던 가수 태진아는 눈물을 참으며 추도사를 낭독했다.

태진아는 "형님은 항상 저에게 멘토였다. '형 가는 길만 따라오면 된다'고 하길래 정말 따라갔다"며 "지난 3일 동안 밥을 안 먹고 술로 배를 채웠다. 형님이 하늘나라 가서 사시면 방송하는 것도 큰 재미가 없을 것 같다"고 한숨지었다.

전북 정읍 출신 1967년 데뷔 1975년 '해뜰날'로 전성기 태진아·설운도·현철과 '4대 천왕' '네박자' '차표 한장' 등 대표곡 50년 넘게 대중들에 큰 인기

그러면서 "치매를 앓는 제 아내가 대관이 형을 기억하는 모습을 보며 끌어안고 울었다. 대관이 형이 그만큼 우리하고 가깝게 지냈으니 기억해주는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추도사 말미에 손을 흔들며 "대관이 형 잘 가. 영원한 나의 라이벌이여"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전북 정읍 출신인 송대관은 7080 한국 대중음악을 대표하던 입지전적 인물이었다. 전주서중, 전주영생고를 졸업한 뒤 1967년 '인정받은 아저씨'로 데뷔, 처음에는 오랜 시간 무명가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 1975년 신곡 '해뜰날'이 큰 히트를 치면서 전성기를 맞았다. 희망적인 노랫말과 중독성 있는 멜로디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기 충분했다.

이후 1976년 MBC '최고가수대상'을 시작으로

1999년 '한국방송대상 가수상', 같은 해 '영상음반대상(골든디스크)' 본상을 수상했으며 2001년 '옥관문화훈장'을 거머쥐었다. 이후 KBS와 SBS 등에서 가수상까지 석권했다.

1981년에는 돌연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한동안 브라운관에서 그를 볼 수 없었으나 1989년 '혼자입니다'로 복귀했으며 '차표 한 장' '고향이 남쪽이랬지' 등이 연달아 히트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외에도 '정 때문에', '딱 좋아', '분위기 좋고' 등 대중적이고 친근한 노래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으며 최근까지도 '지갑이 형님'을 발표하는 등 무대에 대한 열정을 과시했다.

한때 '태진아는 충청도, 송대관은 전라도, 설운도와 현철은 경상도를 대표한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고인은 호남을 대표하는 '트로트 4대 천왕' 중 한 축을 형성하기도 했다. 가수 태진아와는 '라이벌 기믹(속임수)'을 형성하며 TV 토크쇼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다.

히트곡 가운데 슬픔의 회복예약을 담은 '네박자', '유행가' 등은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서민적인 노랫말과 구수한 입담은 가수로서뿐 아니라 예능적인 부분에서도 그를 존재감 있는 가수로 돋보이게 했다.

고인은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추모관에서 영면에 든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연합뉴스

"내 안에 야망캐도 있습니다"

'중영' 사극 드라마 '체크인 한양' 박재찬... "연기 변신 하고 싶어"

"그간 연기한 캐릭터들은 다 순하고 열심히 살려야 인물들이더라고요. 제가 욕심이 없지 않은 편이에요. 다음에는 야망 있는 캐릭터도 연기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채널A 퓨전 사극 드라마 '체크인 한양'에서 조선 최대 여객(호텔) 용전루의 견습 사환을 연기한 가수 겸 배우 박재찬(사진)은 연기 변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드라마에서 착하고 친구들을 아길 줄 아는 견습 고수라로 등장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체크인 한양'이 생애 첫 사극 도전이자 의미가 컸던 드라마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에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연기했다면, 이번에는 (극 중) 상황에만 집중했다"며 "이번 작품을 통해 재미있고 편하게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기를 꾸준히 배워본 적이 없는데 '체크인 한양'을 찍으면서부터 연기 수업도 꾸준히 받게 됐다"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만큼 다시 한번 시작해보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고수라 캐릭터가 자신과 닮은 부분도 있었다고 했다.

박재찬은 "저와 고수라는 70% 정도 닮은 것 같다"며 "특히 (극 중 배경) 용전루에서 성공하려는 고수라가 데뷔 초 열정만으로 가득 찼던 저를 보는 것만 같았다"고 떠올렸다.

박재찬은 2019년부터 웹드라마를 중심으로 연기를 시작했다가 2022년 BL 웹소설 원작 드라마 '시멘트 에라'로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지난해에는 MBC '우리, 집', JTBC '놀아주는 여자', 채널A '체크인 한양'까지 드라마 세 작품에 연달아 출연하기도 했다.

그는 "가수로 데뷔할 때까지만 해도 연기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었다"며 "처음 출연한 투니버스 '조아서 구독'도 초등학교를 겨냥한 작품이었는데, 이를 계기로 웹드라마 출연 연락을 받았고 점



점 연기가 재미있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웹드라마로 시작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거쳐 이제는 방송사 정극 드라마에서 연기하게 됐다"며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목표는 영화라고 귀띔했다. 그는 "영화도 너무 도전해보고 싶다. 현재 (출연) 이야기가 오가는 작품도 드라마보다는 영화 쪽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박재찬은 지난해 드라마 3편에 출연한 배우기도 하지만 보이그룹 DKZ의 멤버이기도 하다.

그는 "그룹으로서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은 음원 차트 10위 안에 드는 것"이라며 "뤼팽(LUPIN), '뭇님 송아지 엉덩이에 뽀' 활동 당시 코로나19 때문에 관객 없이 무대를 많이 했다. 그 곡으로 다시 컴백해서 관객과 함께하는 무대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는 솔로 2집 앨범도 준비 중이다.

/연합뉴스

현대사회 '외로움'에 관하여

새 드라마 '러브 미'... 서현진·유재명·이시우 한 가족 호흡

배우 서현진과 유재명, 이시우가 새 드라마 '러브 미'에서 가족으로 호흡을 맞춘다

'러브 미' 공동 제작사 SLL과 하우픽처스는 지난 7일 출연진을 이같이 공개하고 평범한 가족이 각자의 사랑을 통해 성장하는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서현진은 산부인과 전문의 서준경을 연기한다. 7년 전 비라갈이 찾아온 사고로 인해 무너진 가족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준경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 자기 외로움을 본 옆집 남자로부터 위로받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유재명은 준경의 아빠 서진호 역을 맡는다. 늘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동사무소 동장이다. 불췌 찾아온 사랑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다. 준경의 동생 서준서는 이시우가 연기한다. 여자

친구와는 죽고 못 사는 사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혼자가 될까봐 불안해서 같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

서진호와 역이는 관광 가이드 진자영 역에는 윤세아가, 준경의 옆집 남자 주도현 역에는 장철이, 준서의 소꿉친구 지혜은 역에는 그룹 투와이스 출신 다현이 나선다.

드라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사랑의 이해'의 조영민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제3의 매력'을 공동 집필한 박은영, 박희권 작가가 극본을 맡는다. 동명의 스페셜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다.

제작진은 "외로워서 사랑하고, 사랑해서 외로운 이들을 통해 외로움이란 감정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한 편의 문학 작품 같은 '엘메이드' 드라마로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